

격려사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좋은 계절에 선서화전을 필두로 경허선사의 열반 100주기를 기념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사의 수행의미와 구도열정을 후학들이 되새기게 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허선사께서는 한국불교가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생명을 잃어가던 중대자유인으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라졌던 수행의 선풍을 일으키고 해인사와 범어사의 선원을 필두로 전국 사찰에 선원을 세우기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경허선사께서 배출한 걸출한 선사들이 청정 비구의 승풍을 잇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법통을 이어, 자존을 잃어가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불교를 지켜내는 큰 원동력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종단 정화를 이루어 대한불교조계종의 전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를 지나며 한국불교는 생존 자체에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보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한말처럼 교세가 쇠락하고 신흥종교에마저도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종도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선서화전에 전시된 경허선사의 친필을 대하자면 신명을 바쳐 수행정진하던 선사의 숭고한 기운이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으로만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운을 갖는 것이 선서화이듯이, 선사의 친필을 보는 것으로 현재의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스님의 구도열정을 체험하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경허 만공 스님의 친필을 비롯해, 구하 경봉 서옹 월하 원담 스님 등 큰스님의 친필과 경허스님을 추모하는 80여 명의 출재가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신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과 주지 지운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서화전이 원만하게 회향되어 경

허스님의 정신이 다시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3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